

El Camino de Santiago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성찰·힐링의 '산티아고 순례여행'

홀로 그리고 또 함께...
인생 버킷 리스트

2026 한국일보 창간 57주년 기념 프로젝트



수많은 신화와 사연, 영적 평화를 간직한 산티아고 순례길 ...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위해 이 길을 걸었다. 이 길 곳곳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숨결과 흔이 어우러져 흔적으로 남아 역사적인 건축유물로 탄생돼 순례객들을 맞고 있으며 광야의 들풀과 꽃들은 언제나 영적 동반자로 순례객들과 동행하고 있다.

본보의 이번 2026년 산티아고 순례여행은 프랑스 길의 오리지널 출발점인 생 장 피드 포르에서 시작해 길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산티아고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곳곳을 걷고 체험하며 순례길의 끝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피스테라, 목시아까지 가는 대 여정입니다.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도시 팜플로나도 경유합니다. 포르투갈의 최대 관광지 포르투 여행도 겸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설계했던 인생 버킷 리스트 산티아고 순례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빌바오(Bilbao) _구겐하임 미술관



▲ 마드리드 시내 전경



▲ 생장 피드 포르_시내



▲ 용서의 언덕 (페르돈 고개)



▲ 로그로노_황혼

■ 일정 : 2026년 4/7~ 4/22일 (15박16일)

■ 가격: \$5,395 + 항공료
(가이드·기사·팁 등 \$400 상당 공동경비 포함)

■ 이메일: jesse@koreatimes.com
yikim@koreatimes.com

■ 문의: 한국일보 (213)304-3471
(323)229-2774

한국일보 특전

- 산티아고 순례길 오리지널 출발점인 프랑스 생 장 피드 포르 (St Jean Pied Port) 에서 출발
- 순례를 겸한 관광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팜플로나 시내, 부르고스 산타마리아 대성당, 마드리드 시내관광)
- 최고급 호텔 숙박과 고급 레스토랑 식사, VIP 프로그램
- 낭만과 추억의 순례 여정, 명사와의 대화, 콘서트 (예정)
- 순례자 여권 스탬프 및 순례 인증서 수령
- 순례의 끝, 지구의 끝으로 일컫는 목시아, 피스테라 순례
- 편안한 항공일정 (LA-마드리드, 바르셀로나-LA 직항)
- 참가하고 싶으나 걷기 힘든 참가자를 위하여 리무진 버스 동시 운항



▲ 포르투 시청사 앞



▲ 철의 십자가



▲ 순례길의 상징 조개 껍데기 안내 표시



▲ 수려한 피레네 산맥 전경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_산티아고대성당



▲ 순례길의 끝_목시아